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 분석*

A Study o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nd Intellectual Structure in the LIS Education Research

이성숙 (Sung Sook Lee)**

이지원 (Ji Won Lee)***

초 록

본 연구는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한 연구들의 최근 동향과 지적구조를 2002년 이후 2023년까지 22년간의 논문을 대상으로 정량적 방법, 네트워크 분석,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의 논문 수는 총 169편의 논문이며, 연 평균 논문수는 7.7편이고,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였다. 둘째, 저자 키워드 분석 결과 상위빈도 키워드는 '교과과정', '계속교육', '교육과정',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교육', '사서',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교과목', '주제전문사서'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주제는 4개의 대군집(대학 정규과정 군집, 계속교육 군집, 기록관리직 양성 군집, 사서교사 양성 군집)과 16개의 소군집을 형성하였다. 넷째, 성장지수와 표준 성과지수 분석 결과, 문헌정보학의 전반적인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가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3개의 소군집(교과과정 군집, 계속교육 군집, 교육과정 군집)이 약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다섯째, 삼각매개중심성이 높은 연구주제는 '교과과정', '문헌정보학', '사서', '문헌정보학교육', '정보전문가' 등이며, 다른 주제들과의 관련성이 평균적으로 높은 연구주제는 '교과과정', '문헌정보학', '사서', '교육과정', '기록관리학'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대학의 교육기관 및 계속교육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cent trends and intellectual structure of research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which needs continuous change and improvement, using quantitative, network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methods on articles published over a 22 years from 2002 to 2023.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articles on LIS education in Korea totaled 169 articles, with an average of 7.7 articles per year, and the journal that published the most articles was th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Second, the author keyword analysis showed that the most frequent keywords were 'curriculum', 'continuing education', 'education course', 'LIS', 'LIS education', 'librarian', 'librarian teacher', 'school library', 'course', and 'subject librarian'. Third, the research topics formed four large clusters(Higher education cluster, Continuing education cluster, Archivist training cluster, Teacher librarians training cluster) and 16 small clusters. Fourth, the analysis of the growth index and the standard performance index showed that research on the general curriculum of LIS was the most common throughout the period, and three small clusters(curriculum cluster, continuing education cluster, education course cluster) showed a growth trend, but these clusters also showed weak growth. Fifth, the research topics with high triangle betweenness centrality are 'curriculum', 'LIS', 'librarian', 'LIS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and the research topics with high average relevance to other topics are 'curriculum', 'LIS', 'librarian', 'education course', and 'records manage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and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future.

키워드: 문헌정보학교육, 연구동향, 지적구조, 동시출현단어분석, 네트워크 분석

LIS education, research trends, intellectual structure, co-word analysis, network analysis

*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nfolee@cnu.ac.kr) (제1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iwon@c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4년 11월 21일 ■ 최초심사일자: 2024년 12월 5일 ■ 게재확정일자: 2024년 12월 13일

■ 정보관리학회지, 41(4), 209-234, 2024. <http://dx.doi.org/10.3743/KOSIM.2024.41.4.209>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대학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1887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도서관학교(school of library economy)'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57년 연세대학교에 4년제 대학 도서관학과(현 문헌정보학과) 및 2년제 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면서 시작되었고(곽동철, 2011), 현재 4년제 대학 32개교, 대학원(석사) 28개교, 대학원(박사) 20개교, 교육대학원 10개교, 전문대학 6개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24, 156-159).

도서관 현장은 오픈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등의 4차산업혁명 기술, 이용자의 이용행태 변화, 전자정보의 급증 등 변화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서와 정보전문가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서와 정보전문가가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이는 연구가 특정 학문 분야나 전문직에 요구되는 이론적 기반과 전문지식을 공급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처방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이은주, 노지현, 2020). 또한 학문의 연구동향 및 특성을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예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누적된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며(오세훈, 2005; 이지원, 2019), 한 분야의 연구동향을 알면 해당 분야의 발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Chang et al., 2015).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시작된 지 60여 년이 지났고,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한 연구

가 시작된 지도 50여 년이 지났다.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지만, 문헌정보학 교육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된 것이 없다. 다만 일부 선행연구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의 연구동향을 단편적으로 다룬 사례가 있다. 예컨대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선행연구 중에서 연도별 발행 논문 편수를 기반으로 교육 논문의 연도별 추세, 전체 주제 중 차지하는 비율을 밝힌 연구(문경민, 1993; 손정표, 2003a, 2003b; 송정숙, 2010; 이명희, 2002; 이치주, 2002; 정동열, 1993; 정진석, 2001; 조찬식, 1999; 최희곤, 2003)가 다수 수행되었고, 일부 연구(이명희, 2002; 정동열, 1993; 조찬식, 1999)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이 조사되었다. 또한 지적구조 관련 연구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속하는 군집을 조사한 연구도 있었다(유영준, 2003; 최형욱 외, 2018).

따라서 문헌정보학 교육의 동향을 알고 해당 분야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의 연구동향과 지적구조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의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고,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의 논문 건수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의 연구주제 구성과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셋째 키워드의 시기별 사용 추세는 어떠한가, 넷째 핵심 키워드가 출현한 연구들의 주요 연구 내용은 어떠한가이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은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의 연구동향과 지적구조를 살펴봄으로,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관련연구

문헌정보학 연구동향과 지적구조 선행연구는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주제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를 토대로 연구동향과 지적구조를 파악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문헌정보학 세부주제를 대상으로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를 파악한 연구들이 있었다.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의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에 관한 직접적인 국내 선행연구는 없으므로, 이 장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문헌정보학 교육 관련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다수의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의 선행연구가 진행된바, 문헌정보학 교육을 문헌정보학 일반의 하위 주제로 처리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연구 결과에서 교육만의 결과를 제공하지 않아 교육의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살펴보았다.

문헌정보학 교육의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의 특징으로 첫째,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선행연구에서 교육을 하나의 세부 주제로 다루면서, 연도별 발행 논문 편수를 기반으로 교육 논문의 연도별 추세나 전체 주제 중 차지하는 비율을 언급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 문경민(1993)은 1950년대 말부터 1991년까지의 학위논문(589편)과 학술지 수록 논문(303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자, 연구되는 기관 등에 대해 수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교육과 관련하여 문헌정보학 교육 논문은 논문 총 303편 중

21편(6.9%), 학위논문 589편 중 12편(2.0%)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동열(1993)은 3개 학회지의 논문 338편 중 교육 논문은 21편(6.2%)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조찬식(1999)의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연도별 주제동향을 분석하였는데, 2개 학회지의 전체 233편 논문 중 교육 논문은 5편(2.1%)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도 문헌정보학 교육의 논문 편수를 볼 수 있는 연구들이 있었다. 정진식(2001)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조사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고, 조사 결과 교육 관련 논문은 4.7%로 조사되었다. 이명희(2002)의 연구에서도 전체 분석 대상 논문 597편 중 교육 논문은 27편(4.5%)으로 조사되었다. 이치주(2002)의 연구에서는 현장 중심의 문헌정보학 분야 잡지인 도서관, 도서관문화, 국회도서관보에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논문 319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 관련 논문은 13편(4.1%)으로 조사되었다. 최희곤(2003) 연구에서도 전체 분석 대상 74편 중 전문직(교육)은 5편(6.8%)으로 조사되었다. 손정표(2003a)는 1957년부터 2002년까지 관련 7개 학회지, 16개 대학 기념논문집, 3개 전문기관지에 수록된 2,868편의 논문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문헌정보학 교육 논문은 3.1%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해 손정표(2003b)는 1959년부터 2002까지 학위논문 1,695편을 분석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고, 교육은 18편(1.0%)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송정숙(2010)의 연구에서는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문헌정보학 교육은 7편(0.5%),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문헌정보학 교육은 1편(0.7%)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에서 사용된 연구방법도 조사되었다. 정동열(1993)의 연구에서 교육 분야 21편의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가 14편(66.7%), 서베이가 7편(33.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찬식(1999)의 연구에서도 교육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1순위, 서베이가 2순위로 나타났다. 이명희(2002)의 연구에서도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1순위, 조사연구 2순위로, 사용된 통계는 기술통계 3편, 추리통계 4편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 관련 일부 선행연구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의 지적구조가 언급되었다. 유영준(2003)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실린 1,162편의 논문에 부여된 국회도서관의 색인어를 클러스터링하여, 지적구조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3개 학회지를 통합한 지적구조에서 교과과정은 '공공도서관'과 같은 군집으로 묶였다. 최형욱 외(2018)는 학술지 3종의 1,068편의 논문에 부여된 한국어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15년에 대한 시기별 주제 분석을 위해,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기별로 1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를 시계열 분석하였는데, 교육 관련 키워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출현하지 않았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교과과정'이 11회 출현하였고, '문헌정보학' 군집으로 묶였다. 또한 2003년부터 2017년에는 '교과과정'이 14회 출현하였고 '문헌정보학' 군집으로 묶였으며, '문헌정보학교육'은 17회 출현하였고 '문헌정보학교육 군집'으로 묶였다.

한편 국외의 경우 Jamali와 Nabavi(2021)는 문헌정보학 분야 교육의 연구동향을 파악하

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영어로 출판된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한 논문 총 1,986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연구가 다루는 세부주제, 사용한 연구방법, 다루는 과정(학부 혹은 대학원 등), 연구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교과과정(가르치는 것) 관련 연구가 교육학(가르치는 방법) 관련 연구보다 더 많이 진행되었다. 사용한 연구방법은 설문조사가 가장 많았고, 실험 연구는 부족하여 교수법 개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대상 국가는 미국이 134개로 가장 높았다. 세부주제 분석결과, 정보조직의 교과과정이 많이 연구된 주제였고, 대학도서관과 기록관 중심의 교육 연구는 학교도서관과 다른 주제의 연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논문에서 논의된 대부분 주제는 관종별 도서관, 기술 관련 주제(예: 이러닝 및 교육 기술), 조직 관련 주제(예: iSchools 및 협회), 전문성 개발(예: 교육 및 콘퍼런스), 학생 관련 주제(예: 학생 업무 및 학습 스타일), 커리큘럼 및 콘텐츠(예: 리더십), 교육 문제(예: 다양성 및 고용 시장) 등 몇 가지 클러스터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연속간행물 사서나 법률과 같은 주제가 논의되었고, 2010년 중반 이후에는 정치적 리터러시(political literacy),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개인정보 보호(privacy),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 GLAM 융합과 같은 주제가 연구에서 등장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문헌정보학 교육의 연구동향과 지적구조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 연구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주제 중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자료의 유형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문헌정보학 교육이 차지하는 대체적인 비율은 학위논문의 경우 전체의 0.5%부터 2.0%까지,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2.1%부터 6.9%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는 문헌정보학 교육 논문의 편수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문헌정보학 교육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서베이 순이었다. 셋째, 다수의 문헌정보학 지적구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소수의 논문 편수를 가진 문헌정보학 교육의 세부 주제의 지적구조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은 문헌정보학 일반 군집, 문헌정보학교육 군집, 공공도서관 군집 등 다양한 군집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국외에서는 비록 소수의 논문이지만 문헌정보학 교육의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 다루어진 세부주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문헌정보학 교육의 자리매김이 더욱 중요해지는 현시점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연구동향과 지적구조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3.1 데이터 수집과 키워드 선정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의 국내 연구동향과 지적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n Citation Index, 이하 KCI)에 등재된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며, 대상 기간은 KCI의 구축이 시작된 200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2년간으로 하였다. 문헌정보학 교육 논문을 추출하기 위해 관련 키워드를 선정하여 논문의 제목과 저자키워드에서 검색하였다. 키워드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용어들인 ‘문헌정보학 교육’, ‘도서관학 교육’, ‘사서 양성’, ‘사서교육’, ‘계속교육’, ‘교과과정’으로 선정하였다. 검색 결과 402건의 논문이 추출되었고, 전체 논문을 검토하여 이 가운데 문헌정보학 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233건의 논문을 제외하고 총 169건의 논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외된 논문은 주로 학교도서관, 정보이용교육 등과 관련된 논문이었다.

또한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과 지적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동시출현단어 분석과 시기별 키워드 분석을 하기 위하여 수집된 169건의 논문에서 한국어 저자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연구의 분석 및 해석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다음의 키워드 전처리 정제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가 띄어쓰기로 인해 다른 키워드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띄어쓰기를 붙여쓰기 형태로 변환하였다. 둘째, 키워드 내에 사용된 모든 구두점은 생략하였다. 셋째, 동의어, 약어 사용 및 영문 사용 등으로 인하여 표기가 다르게 나타난 용어는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 또는 자주 사용되는 약어를 대표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넷째, 일부 키워드는 그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키워드가 사용된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키워드 '질적연구', '설문조사'가 나타난 7건의 논문들을 확인하여 '연구방법'을 나타내는 5건의 키워드는 제외하였다. 또한 이 중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키워드 '사서교육', '사서직교육', '사서교육훈련'이 나타난 15건의 논문들도 확인하여 대학에서의 교육이나 대학에서의 교육과 계속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경우는 '사서교육'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계속교육을 의미하는 경우는 '계속교육'으로 키워드를 수정하였다. 다섯째, 앞에서 수행한 처리 작업으로 동일 저자 키워드가 동일한 논문 내에서 중복 발생한 경우 이를 제거하였다. 이후 네트워크 분석에 적절한 키워드 수를 고려하여 출현빈도수 3회 이상의 키워드를 최종적인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논문 및 키워드 선정과 관련된 단계별 대상 건수는 <표 1>과 같으며, 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키워드 및 빈도수는 <표 2>와 같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2년간 국내 문헌

정보학 교육의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를 규명하고자, KCI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전체적인 논문 건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연도별, 학술지별 논문 건수의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전체 연구주제 구성과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논문에 사용된 저자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 동시출현분석과 지적구조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키워드 시기별 사용 추세 분석을 수행하였고, 넷째 키워드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 키워드가 출현한 연구들의 주요 연구 내용을 분석하였다.

키워드 분석에 있어서는 169편의 논문에 출현한 저자키워드 중에서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 54건을 대상으로 먼저 키워드 동시출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재윤이 개발한 COOC V.0.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한 피어슨 상관관계수에 의한 2차 연관성 행렬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핵심노드뿐만 아니라 비 핵심노드 간의 관계를 나타내어 작은 군집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재윤, 2006a). 다음으로 Wnet V.0.4.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별로 중요한 링크만을 남겨 전체 노드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보장하는 패스파인더 네트워크(Pathfinder Network, PFNet)

<표 1> 분석 대상 논문 및 키워드 수

내용	건수	비고
검색 결과 논문 수	402편	
분석 대상 논문 수	169편	문헌정보학 교육 외 논문 233편 제외
키워드 정제 전 키워드 수(빈도)	515개 키워드(882회)	
키워드 정제 후 키워드 수(빈도)	441개 키워드(882회)	
중복 출현 키워드 제거 후 키워드 수(빈도)	441개 키워드(854회)	동일 문헌 내 중복 키워드 28건 제외
최종 분석 대상 저자키워드 수(빈도)	54개 키워드(417회)	3회 이상 출현

〈표 2〉 출현빈도 3건 이상 키워드 및 빈도수

번호	키워드	빈도수	번호	키워드	빈도수
1	교과과정	38	28	교육실습	4
2	계속교육	35	29	국립중앙도서관	4
3	교육과정	29	30	독서지도	4
4	문헌정보학	29	31	문헌정보학교수학습법	4
5	문헌정보학교육	24	32	어린이서비스	4
6	사서	17	33	의학사서	4
7	사서교사	14	34	정보전문가	4
8	학교도서관	14	35	직무분석	4
9	교과목	13	36	필수과목	4
10	주제전문사서	10	37	강의계획서	3
11	기록전문직	9	38	교과과정개선	3
12	실습	9	39	기록관리학교육	3
13	공공도서관	8	40	도서관	3
14	대학도서관	8	41	독서지도전문사서	3
15	사서교육	7	42	목록교육	3
16	NCS	6	43	사서교사전문성	3
17	기록관리학	6	44	석사과정	3
18	도서관실습	6	45	아키비스트	3
19	역량	6	46	연구	3
20	전문성	6	47	예비사서	3
21	iSchool	5	48	장애인서비스	3
22	교육과정개발	5	49	전문사서	3
23	데이터사이언스	5	50	전문직	3
24	어린이사서	5	51	정보조직	3
25	핵심과목	5	52	주제전문서비스	3
26	계속교육프로그램	4	53	지침서	3
27	교과목개발	4	54	평생교육	3

알고리즘과 패스파인더 네트워크상의 군집을 유사도 분포에 따라 여러 개의 하위 네트워크로 분할하여 전체적인 지적구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 주제영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병렬최근접 이웃 클러스터링 알고리즘(Parallel Nearest Neighbor Clustering, 이하 PNNC)을 적용하였다. PNNC 알고리즘은 각 노드를 최근접 이웃끼리 연결하여 군집을 형성하는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의 하나로, 패스파인더 네

트워크의 줄기에 어울리도록 군집을 생성해 주며, 군집의 수를 자동적으로 결정해 주는 장점이 있다(이재윤, 2006b).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위해서는 NodeXL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각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노드의 크기로 설정하였고, 키워드간의 연결 빈도를 링크의 굵기로 설정하였으며, 군집별로 노드의 형태와 색상을 다르게 표현하여 시각화하였다. 키워드 사용 추세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지 키워드들의 사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키워드 군집에 속한 키워드들의 연도별 출현빈도수를 살펴보고, 빈도수를 기반으로 한 표준 성과지수, 성장지수(이재윤 외, 2011)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 연구의 전반에 걸쳐 중심이 되는 키워드와 군집 내에서 연결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재윤(2006c: 2013)이 가장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안한 척도 중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rTBC)과 평균연관성(AVGSIM)의 값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용어 분석 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핵심 키워드가 출현한 연구들의 주요 연구 내용을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4.1 연도별 및 학술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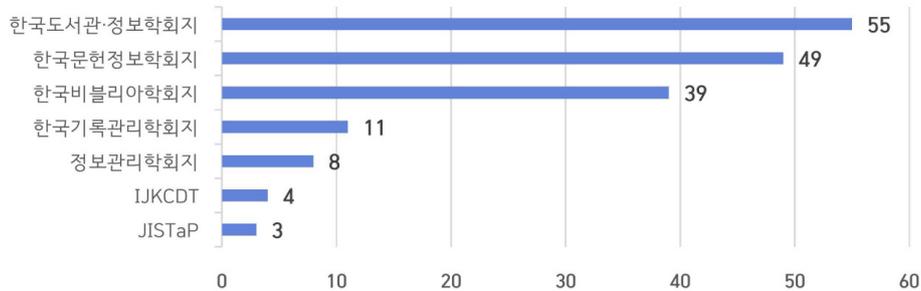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 관련 16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2002년에서 2023년까지의 연도별 게재 논문 수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22년간 게재 논문 평균은 7.7편이었는데, 2011년이 다른 연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2011년에 게재 논문의 수가 많은 것은 2009년부터 시행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 문헌정보학 교육 관련 추진전략이 수립되면서 교육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2011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2, 2015, 2016년에 다소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게재 논문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며 나타났다. 2021년 이후 최근에는 평균을 약간 웃도는 편수가 게재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교육은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주제라기보다는 교육과 관련된 환경이나 이슈에 많은 영향을 받는 주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는 총 7종으로, 학술지 한 종당 평균 24.1편의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로 55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전체 논문 수의 약 32.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그림 1> 연도별 게재 논문 수



〈그림 2〉 학술지별 게재 논문 수

다음으로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다른 학술지인 정보관리학회지, IJKCDT(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JISTaP(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는 모두 평균에 못 미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었다. 특히, 문헌정보학의 핵심 학술지라 여겨지는 4개 학술지 중 정보관리학회지의 교육 관련 수록 논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정보관리학회지가 정보학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그림 2〉 참조).

4.2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지적구조

본 연구에서 검색한 169편의 논문에 3회 이상 출현한 저자키워드 54개는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Wnet V.0.4.1 프로그램의 PFNet 알고리즘과 PNN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54개 키워드로 생성된 군집은 〈표 3〉과 같고, 4개 대군집(Large Cluster: LC)과 16개의 소군집(Small Cluster: SC)이 형성되었다. 대군집 LC1에는 22개의 키워드가 총 183회 출현하였고 5개의 소군집(SC1, SC4, SC9, SC11, SC12)으로 세

분되었으며, 대군집 LC2에는 21개의 키워드가 총 140회 출현하였고 6개의 소군집(SC2, SC5, SC7, SC10, SC14, SC16)으로 세분되었다. LC3은 7개의 키워드가 59회 출현하였고 3개의 소군집(SC3, SC8, SC15)으로 세분되었으며, LC4는 4개의 키워드가 35회 출현하였고 2개의 소군집(SC6, SC13)으로 세분되었다. 〈그림 3〉은 NodeX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군집들을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각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노드의 크기로 설정하였고, 키워드간의 연결 빈도를 링크의 굵기로 설정하였으며, 대군집별로 노드의 색상과 소군집별로 노드의 형태를 다르게 표현하여 시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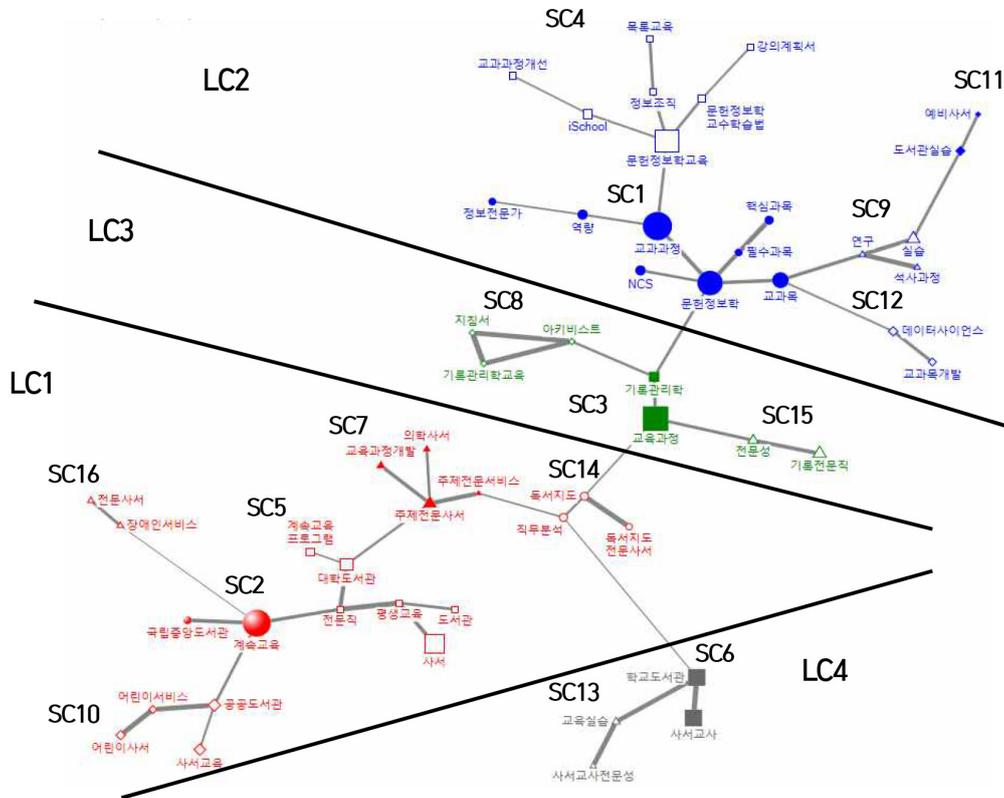
먼저 대군집 LC1에 속하는 소군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1의 대표 키워드는 ‘교과과정’과 ‘문헌정보학’이며, 두 노드가 SC1의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외에 키워드 ‘교과목’, ‘역량’, ‘NCS’, ‘핵심과목’, ‘필수과목’, ‘정보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군집은 가장 규모가 큰 군집으로 문헌정보학의 전반적인 교과과정들에 관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SC2의 대표 키워드는 ‘문헌정보학교육’으로 해당 노드의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외에 ‘iSchool’, ‘문헌정보학교수학습법’, ‘강의계

〈표 3〉 동시출현단어 네트워크 군집

대군집	소군집	키워드	빈도수	대군집	소군집	키워드	빈도수
LC1 (183)	SC1 (105)	교과과정	38	LC2	S10 (24)	공공도서관	8
		문헌정보학	29			사서교육	7
		교과목	13			어린이사서	5
		역량	6			어린이서비스	4
		NCS	6		SC7 (22)	주제전문사서	10
		핵심과목	5			교육과정개발	5
		필수과목	4			의학사서	4
	정보전문가	4	주제전문서비스		3		
	SC4 (45)	문헌정보학교육	24		SC14 (11)	독서지도	4
		iSchool	5			직무분석	4
		문헌정보학교수학습법	4			독서지도전문사서	3
		강의계획서	3	SC16 (6)	장애인서비스	3	
		교과과정개선	3		전문사서	3	
		목록교육	3	LC3 (59)	SC3 (35)	교육과정	29
		정보조직	3		기록관리학	6	
	SC9 (15)	실습	9		SC8 (15)	기록전문직	9
		연구	3		전문성	6	
		석사과정	3		SC15 (9)	기록관리학교육	3
SC11 (9)	도서관실습	6	아키비스트	3			
	예비사서	3	지침서	3			
SC12 (9)	데이터사이언스	5	LC4 (35)	SC6 (28)	사서교사	14	
	교과목개발	4		학교도서관	14		
LC2 (140)	SC2 (39)	계속교육	35	SC13 (7)	교육실습	4	
		국립중앙도서관	4		사서교사전문성	3	
	SC5 (38)	사서	17	/			
		대학도서관	8				
		계속교육프로그램	4				
		도서관	3				
		전문직	3				
	평생교육	3					

획서', '교과과정개선', '목록교육', '정보조직'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전통적인 문헌정보학 교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정보조직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것은 해외 선행연구(Jamali & Nabavi, 2021)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군집 역시 앞서 설명한 SC1과 유사하게 문헌정보학 교육 내용을 포괄하면서 iSchool, 목록교육

과 관련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SC9의 대표 키워드는 '실습'이었으며 이 외 '연구', '석사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학교 교육 가운데 대학원 과정 교육 관련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SC11은 '도서관실습', '예비사서'를 포함하고 있어서 문헌정보학 교육 중에서 실습 관련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SC12는 최근에 주목받



〈그림 3〉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 지적 구조

고 있는 ‘데이터사이언스’와 ‘교과목개발’이 포함된 군집으로 데이터사이언스 관련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소군집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군집 LC1은 문헌정보학 교육 중에서 대학에서의 학부 및 대학원 정규 교육 과정과 관련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대군집 LC2에 속하는 소군집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2에 포함된 키워드는 ‘계속교육’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계속교육과 관련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SC5의 대표 키워드는 ‘사서’였으며, 이 외에 ‘대학도서관’, ‘계속교육프로그램’, ‘도서관’, ‘전문직’, ‘평생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주로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 계속교육과 관련된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SC10은 키워드 ‘공공도서관’, ‘사서교육’, ‘어린이사서’, ‘어린이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도서관 사서 대상 교육과 어린이사서 관련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SC7은 키워드 ‘주제전문사서’, ‘교육과정개발’, ‘의학사서’, ‘주제전문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대학도서관에서의 보다 전문화된 영역의 사서군과 관련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SC14는 키워드 ‘독서지도’, ‘직무분석’, ‘독서지도전문사서’를 포함하고 있어 독서지도와 관련된 군집으로 확인되었으며, 마지막으로 SC16은 키워드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를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 대상

서비스 및 사서와 관련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이 소군집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군집 LC2는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사서들에 대한 계속교육과 관련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대군집 LC3에는 소군집 SC3, SC8, SC15가 속해 있었고, 각 소군집별 키워드들을 각각 살펴보면 SC3에는 '교육과정', '기록관리학', SC8에는 '기록전문직', '전문성', SC15에는 '기록관리학교육', '아키비스트', '지침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각 소군집들은 모두 '기록관리학' 및 '기록전문직'과 관련된 유사한 성격의 군집들로 확인되었고 대군집 또한 기록관리학 및 기록전문직 관련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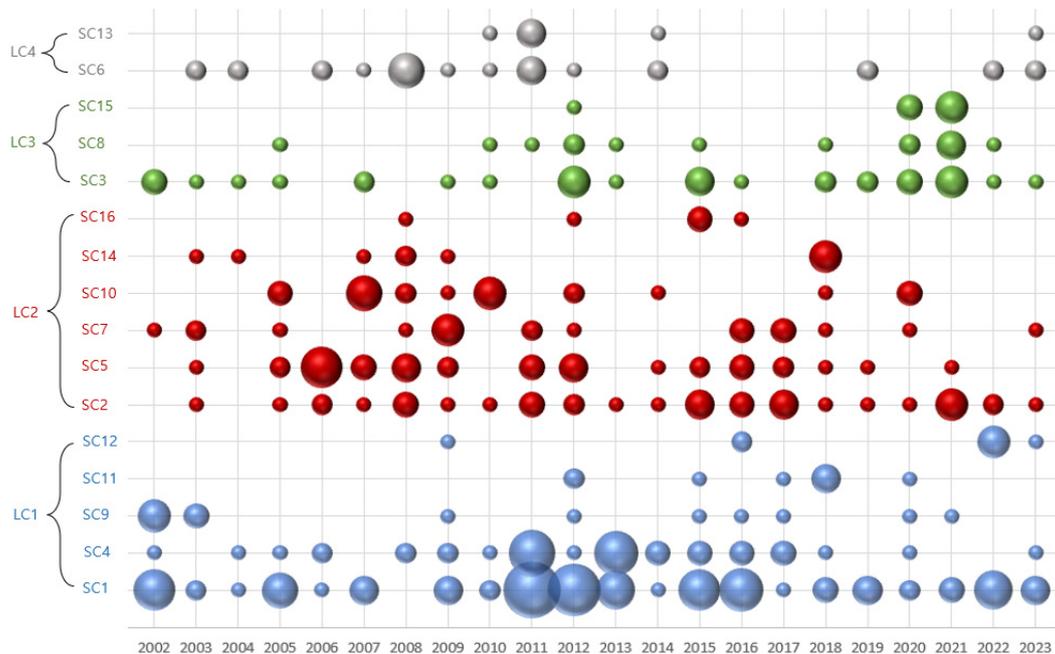
대군집 LC4에는 소군집 SC6, SC13이 속해 있었고, SC6은 키워드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을 포함하고 있었고, SC13은 '교육실습', '사서교사전문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서교사 양성과 관련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4.3 키워드 출현 추이 분석

키워드 군집으로 대표되는 연구주체들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키워드 군집별로 소속된 각 키워드들이 연도별로 출현한 양을 산출하여 연도별 각 군집의 비중을 측정하였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산출된 각 키워드 군집의 비중은 <그림 4>와 같다.

SC1(교과과정, 문헌정보학)이 키워드 군집이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많이 출현하였는데, 특히 2014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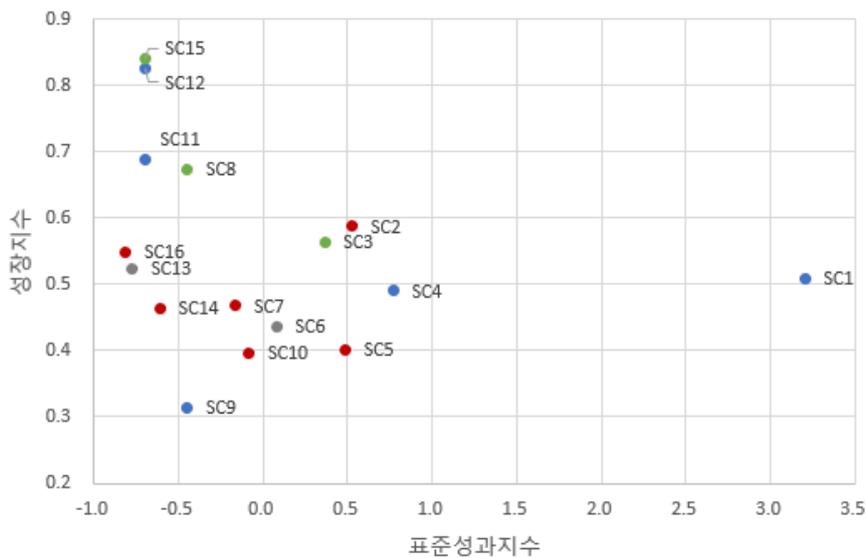
<그림 4> 키워드 군집 연도별 분포

그리고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또한 SC4(문헌정보학교육, iSchool), SC2(계속교육, 국립중앙도서관), SC5(사서, 대학도서관), SC3(교육과정, 기록관리학) 키워드 군집이 특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출현한 다른 키워드 군집들에 비해 비교적 전 기간에 걸쳐 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록관리학 및 기록전문직과 관련된 LC3 키워드 군집은 다른 연도에는 출현이 미미하였고, 상대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많이 출현하였음이 나타났다.

〈그림 4〉에 나타난 키워드 군집의 연도별 추세를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키워드 군집들의 성과 및 성장 추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는 키워드 군집 16개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논문이 발표된 양과 성장 추세를 측정한 결과이다. 가로축의 표준 성과지수(이재윤 외, 2011)는 각 군집별로 관련된 키워드의 양을 z 점수로 표준화한 것으로 0

보다 큰 수는 키워드의 수가 16개 군집의 평균보다 많음을, 0보다 작은 수는 키워드의 수가 16개 군집의 평균보다 적음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13년 동안 관련 키워드의 증가 추세를 성장지수(이재윤 외, 2011)로 나타낸 것으로 0.5보다 크면 해당 키워드의 출현이 증가해 왔음을 나타내고 1에 가까울수록 해당 키워드의 최근 출현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성장지수가 0.5보다 작으면 해당 키워드의 출현이 감소해 왔음을 나타내고 0에 가까울수록 최근 출현 비중이 낮음을 의미한다(유영준, 이재윤, 2019).

키워드 군집 16개의 성장지수와 표준 성과지수를 나타낸 〈그림 5〉를 보면 ‘교과과정’과 ‘문헌정보학’이 포함된 SC1이 압도적으로 많은 논문에서 다루어진 키워드 군집(표준 성과지수 3.2)이었고 그 외에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는 군집은 5개 군집(SC4(문헌정보학교육, iSchool), SC2(계속교육, 국립중앙도서관), SC5(사서, 대



〈그림 5〉 키워드 군집 성장지수 및 표준성과지수

학도서관), SC3(교육과정, 기록관리학), SC6(사서교사, 학교도서관))이었으며, 나머지 10개의 군집은 평균 이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SC1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군집들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많은 군집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이 나타났다.

성장지수에 있어서는 정체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인 0.5 이상인 군집이 9개, 0.5 미만인 7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장세에 있는 9개의 군집 중에서 6개의 군집은 매우 낮은 출현빈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따라서 해당 주제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최근에 일시적으로 주목받았던 주제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군집에는 성과지수가 가장 높은 '데이터사이언스'와 '교과목개발'이 포함된 군집 SC15, '기록관리학교육' 등이 포함된 군집 SC12 등이 해당된다. 표준 성과지수가 평균 이상인 군집이 0.5 이상인 군집은 3개 군집으로 나타났는데, '교과과정'과 '문헌정보학'이 포함된 군집 SC1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 성장지수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나, 성과지수는 거의 정체 수준(0.509)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년 일정한 비중으로 비슷하게 다루어진 주제임을 확인하였다. '계속교육', '국립중앙도서관'이 포함된 군집 SC2(성장지수 0.587)와 '교육과정', '기록관리학'이 포함된 SC3(성장지수 0.563)은 평균 이상의 출현빈도를 보이면서 약한 성장세에 있는 주제로 파악되었다.

4.4 키워드 중심성 분석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 연구의 전반에 걸쳐

중심이 되는 키워드와 군집 내에서 연결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심성과 평균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심성이란 네트워크 내에서 각 노드가 차지하는 위상을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으며, 가중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분석하기 위한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rTBC)과 평균연관성(AVGSIM)을 산출하였다.

삼각매개중심성은 가중 네트워크에서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를 매개시켜주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이며, 평균연관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평균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네트워크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주변 노드들과의 관계만 측정하는 결과를 보여준다(이재윤, 2013). <표 4>와 같이 다른 주제들과의 폭넓은 연계를 나타내는 삼각매개중심성이 높은 연구주제는 '교과과정', '문헌정보학', '사서', '문헌정보학교육', '정보전문가' 등이며, 다른 주제들과의 관련성이 평균적으로 높은 연구주제는 '교과과정', '문헌정보학', '사서', '교육과정', '기록관리학'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과정', '문헌정보학', '사서', '문헌정보학교육', '교육과정' 5개의 연구주제는 상위 10위 내의 삼각매개중심성과 평균연관성 지수 순위 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삼각매개중심성 지수 순위에만 포함된 키워드는 '정보전문가', '장애인서비스', 'iSchool', 'NCS', '국립중앙도서관'이었으며, 평균연관성 지수 순위에만 포함된 키워드는 '기록관리학', '계속교육', '필수과목', '교과목', '연구'로 나타났다.

〈표 4〉 키워드의 가중 네트워크 중심성 순위

순위	키워드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	순위	키워드	평균연관성
1	교과과정	0.59289	1	교과과정	0.16372
2	문헌정보학	0.54717	2	문헌정보학	0.14954
3	사서	0.54644	3	사서	0.12645
4	문헌정보학교육	0.53411	4	교육과정	0.10996
5	정보전문가	0.51161	5	기록관리학	0.10567
6	교육과정	0.49274	6	계속교육	0.10546
7	장애인서비스	0.48766	7	필수과목	0.10402
8	iSchool	0.48331	8	교과목	0.10271
9	NCS	0.47968	9	연구	0.09391
10	국립중앙도서관	0.43687	10	문헌정보학교육	0.08711

4.5 내용분석

이 절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의 연구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실제 다루어진 내용을 파악하여 앞 절의 용어 분석 결과를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키워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분석 대상 키워드는 출현빈도가 가장 많은 ‘교과과정’과 ‘계속교육’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정보학 교육 연구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키워드 ‘교과과정’ 연구의 내용분석 결과, 네 가지 특징적인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는 학부 교과과정의 변화, 발전, 실용성 등 교과과정의 발전과 향후 방향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 연구였다. 이런 연구들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특징적 변화에 관한 연구(노영희, 2015)”와 같이 학부 교과과정을 연구하면서, 교과과정의 현황을 조사하고, 변화 추이나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른 관점으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현황조사 및 인식조사 연구(홍현진 외, 2021)”와 같

이 현장 사서의 인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도 하고, “사서직 진출분야별 전공교과목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안인자 외, 2012)”와 같이 사서직 진출분야에 따른 교과과정의 실효성을 평가한 연구도 있었다. 이런 연구를 통해 문헌정보학 교육 연구들은 교과과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지식 정보 및 도서관 환경을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해왔다.

또한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장윤금, 2011)”와 같이 국외의 교과과정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교과과정의 미래 방향을 제안한 연구들도 있었다. 이런 논문에서 국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위한 국외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분석 연구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직 사서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표준 교과목의 개발 및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노동조, 2009)”와 같이 표준 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또한 4년제 학부과정의 교과과정 이외에도 전문대학

교과과정과 대학원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둘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연구는 문헌정보학 세부 주제를 대상으로 한 교과과정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는 정보서비스 영역, 도서관 경영 영역, 자료조직 영역, 학교도서관 영역 등 대상을 달리하여 각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영역별 교과과정의 개선방안을 논한 연구 이외에도 iSchools 도입과 데이터 측면과 ICT 실습이 강조된 데이터사이언스 교과과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들이 있었다.

셋째, 다음으로 주제전문사서와 관련된 교과과정 연구들이 있었다.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제전문사서 교육 연구에는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연구(남영준, 허운순, 2005)”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공공도서관 어린이사서를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정혜미, 차미경, 2007)”와 같이 어린이 사서, 장애인 서비스 전문사서를 위한 교과과정 연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교과과정 연구들이 있었다. 이 연구에는 “국내외 기록관리학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이운정, 정연경, 2021)”와 같이 대부분 국외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국내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제언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이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각 학교가 기록관리학 협동과정을 개설하면서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키워드 ‘계속교육’가 출현한 연구

의 내용 분석도 진행하였는데, 조사 결과 ‘교과과정’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계속교육 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는 앞서 살펴본 교과과정과 마찬가지로 계속교육의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논하거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 연구들이었다. 이런 연구에는 “사서 계속교육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장덕현 외, 2015)”가 해당된다. 또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콘텐츠나 장애인과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도 있었고, “Kirkpatrick 평가모형을 활용한 사서교사 계속교육 효과 측정 연구(오의경, 2023)”와 같이 계속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둘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연구는 관중별 도서관의 계속교육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의 계속교육이 다루어졌고, 소수이긴 하지만 의학도서관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도 다루어졌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대학도서관 사서를 위한 전문 계속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장혜란 외, 2008)”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계속교육과 “대학도서관 리에종사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모형(박수희, 정동열, 2012)” 연구와 같이 주제전문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 어린이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속교육 현황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장윤금, 정행순, 2008)”와 같이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공공도서관 어린이 사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황 분석(차미경 외, 2007)”과 같이 어린이 사서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셋째, 그 다음으로 기록관리 전문가의 계속 교육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여기에는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 방안 연구(김유승 외, 2021)”와 같이 기록관리 전문가의 계속교육 발전 방안, “영미의 기록전문직 계속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국내 계속교육 개선방안 연구(정숙영, 김순희, 2021)”와 같이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해 계속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국가기록원 계속교육 전이효과에 관한 연구(정임찬, 김수정, 2018)”와 같이 계속교육의 효과를 논한 연구들이 있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어느 분야에서나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력을 잘 길러내기 위한 충실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재고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 또한 필연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한 연구들의 최근 동향과 지적구조를 2002년 이후 22년간 논문 169편을 대상으로 정량적 방법, 네트워크 분석,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의 연도별 논문 수에 있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에 걸쳐 총 169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연 평균 논문 수는 7.7편에 불과하였다. 2011년이 다른 연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고, 게재 논문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며 나타났으며, 2021년 이후 최근에는 평균을 약간 웃도는 편수가 게재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교육은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주제라기보다는 교육과 관련된 환경이나 이슈에 많은 영향을 받는 주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는 총 7종으로, 학술지 한 종당 평균 24.1편의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로 전체 논문 수의 약 3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저자 키워드 분석으로 살펴본 10건 이상의 상위빈도 키워드는 ‘교과과정’, ‘계속교육’, ‘교육과정’,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교육’, ‘사서’,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교과목’, ‘주제전문사서’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주제들은 전체적으로 크게 4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대군집 LC1은 문헌정보학 교육 중에서 대학에서의 학부 및 대학원 정규교육 과정과 관련된 군집이었고, LC2는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사서들에 대한 계속교육과 관련된 군집이었으며, LC3은 기록관리학 및 기록전문직 관련 군집이었고, LC4는 사서교사 양성과 관련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키워드 군집으로 대표되는 연구주제들의 연도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군집 16개의 성장지수와 표준 성과지수를 살펴본 결과, 문헌정보학의 전반적인 교과과정에 관한 군집(SC1)이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iSchool 및 목록교육이 포함된 포괄적인 문헌정보학 교육(SC4), 국립중앙도서관의 계속교

육(SC2), 대학도서관에서의 계속교육(SC5), 그리고 기록관리학 교육과정(SC3)이 특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출현한 다른 키워드 군집들에 비해 비교적 전 기간에 걸쳐 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출현빈도의 크기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 추세를 보이는 군집은 3개 군집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모두 약한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연구주제들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심적인 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rTBC)과 평균연관성(AVGSIM)을 살펴본 결과, 다른 주제들과의 폭넓은 연계를 나타내는 삼각매개중심성이 높은 연구주제는 '교과과정', '문헌정보학', '사서', '문헌정보학 교육', '정보전문가' 등이며, 다른 주제들과의 관련성이 평균적으로 높은 연구주제는 '교과과정', '문헌정보학', '사서', '교육과정', '기록관리학' 등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키워드 '교과과정'과 '계속교육'이 출현한 연구들의 내용 분석 결과, 유사한 특징들이 나타났다. 먼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과과정'이나 '계속교육'의 변화,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관중별 또는 주제전문사서, 데이터사이언스 측면을 강조한 교과과정이나 계속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국외 교과과정과 계속교육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한편 교과과정과 계속교육에 사서의 인식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기록학 교과과정 및 계속교육의 발전 방향,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문헌정보

학 교육 관련 연구의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많은 정보환경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 현장을 성공적으로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교육 관련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헌정보학 교육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 특히 인공지능 및 데이터사이언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인공지능과 데이터사이언스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바, 데이터사이언스 및 인공지능과 관련한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와 같이 국내도 '가르치는 것'의 관련 연구가 '가르치는 방법'의 관련 연구보다 더 많이 진행되었는데,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 연구에서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의 문헌정보학 교육 동향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연구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과 같은 주제의 연구들 예를 들면 '다양성, 형평성, 포용(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디자인씽킹(design-thinking)', '정치적 리터러시(political literacy)', '사회복지(social work)', 'GLMA 융합' 등과 문헌정보학 교육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연구들(Abels et al., 2018; Chrastka, 2018; Dali, 2018; Jamali & Nabavi, 2021; Lofca, 2024)이 수행되었으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의 지적구조에서는 그러한 시도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에 주목하면서,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주제 및 타 분야와의 융합을 접목시키면서 교육 논의의 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대학의 교육기관 및 계

속교육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 관련 연구만을 살펴본 한계가 있다. 향후 문헌정보학 교육 관련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의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추가

적인 미래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술 논문의 연구동향과 지적구조에 중점을 둔 연구로서, 향후 문헌정보학 교육과 관련된 공급자인 교수자, 수요자인 학생과 현직 사서, 일반 이용자, 정책 입안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문헌정보학 교육 정책들을 수립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언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동철 (2011).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69-83.
<https://doi.org/10.16981/kliss.42.2.201106.69>
- 김유승, 박지영, 박태연, 손승희, 윤은하, 이민영, 전보배, 현문수 (2021).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19-40.
<http://doi.org/10.14404/JKSARM.2021.21.1.019>
- 남영준, 허운순 (2005).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39-64.
- 노동조 (2009).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451-468. <http://doi.org/10.4275/KSLIS.2009.43.4.451>
- 노영희 (2015).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특징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79-107.
<https://doi.org/10.16981/kliss.46.201512.79>
- 문경민 (1993).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서관학과.
- 박수희, 정동열 (2012). 대학도서관 리에종사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311-339. <http://doi.org/10.4275/KSLIS.2012.46.4.311>
- 손정표 (2003a).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9-32.
- 손정표 (2003b).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1959~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4), 21-42.
- 송정숙 (2010).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현황 분석: 2001년~2010년 발행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333-353. <https://doi.org/10.16981/kliss.41.4.201012.333>
- 안인자, 최상기, 노영희, 김주섭 (2012). 사서직 진출분야별 전공교과목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373-402. <https://doi.org/10.16981/kliss.43.4.201212.373>
- 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및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379-408. <https://doi.org/10.3743/kosim.2005.22.3.379>
- 오의경 (2023). Kirkpatrick 평가모델을 활용한 사서교사 계속교육 효과 측정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2), 295-311. <https://doi.org/10.14699/KBIBLIA.2023.34.2.295>
- 유영준 (2003). 문헌정보학의 지식 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유영준, 이재운 (2019). 외국 개혁신학 학술지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3), 149-170. <http://doi.org/10.14699/kbiblia.2019.30.3.149>
- 이명희 (2002).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287-310.
- 이윤정, 정연경 (2021). 국내외 기록관리학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567-591.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567>
- 이은주, 노지현 (2020). 국내 기록조직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129-146.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4.129>
- 이재운 (2006a). 지적구조의 규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333-355. <https://doi.org/10.4275/kslis.2006.40.2.333>
- 이재운 (2006b). 지적 구조 분석을 위한 새로운 클러스터링 기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4), 215-231. <https://doi.org/10.3743/KOSIM.2006.23.4.215>
- 이재운 (2006c). 계량서지적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중심성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191-214. <https://doi.org/10.4275/kslis.2006.40.3.191>
- 이재운 (2013). tnet과 WNET의 가중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241-264. <http://doi.org/10.3743/KOSIM.2013.30.4.241>
- 이재운, 김관준, 강대신, 김희정, 유소영, 이우형 (2011). 계량서지적 기법을 활용한 LED 핵심 주제영역의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연구, 42(3), 1-26.
- 이재운. COOC. (Version 0.4) [Computer Software].
- 이재운. WNET. (Version 0.4.1) [Computer Software].
- 이지원 (2019). 목록 분야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6(4), 279-300. <https://doi.org/10.3743/kosim.2019.36.4.279>
- 이치주 (2002). 현장중심의 문헌정보학분야 잡지를 통한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년~2000년. 정보관리학회지, 19(3), 145-160.
- 장덕현, 구분진, 윤희윤 (2015). 사서 계속교육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46(2), 181-202. <https://doi.org/10.16981/kliss.46.201506.181>
- 장윤금 (2011).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한국·미국·호주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317-34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4.317>
- 장윤금, 정행순 (2008). 공공도서관 어린이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속교육 현황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481-501. <https://doi.org/10.4275/KSLIS.2008.42.4.481>
- 장혜란, 홍현진, 노영희, 오의경 (2008). 대학도서관 사서를 위한 전문 계속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133-168. <https://doi.org/10.4275/KSLIS.2008.42.3.133>
- 정동열 (1993).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0(2), 23-41.
- 정숙영, 김순희 (2021). 영미의 기록전문직 계속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국내 계속교육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231-247.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1.231>
- 정진식 (2001).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3), 55-78.
- 정혜미, 차미경 (2007). 공공도서관 어린이사서를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161-181. <https://doi.org/10.14699/kbiblia.2007.18.2.161>
- 정협찬, 김수정 (2018).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국가기록원 계속교육 전이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71-95.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3.071>
- 조찬식 (1999).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3), 45-61.
- 차미경, 이연옥, 양수연, 정혜미 (2007). 공공도서관 어린이 사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황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1), 95-115. <https://doi.org/10.14699/kbiblia.2007.18.1.095>
- 최형욱, 최예진, 남소연 (2018). 문헌정보학 분야의 지적구조 및 연구 동향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정보관리학회지*, 35(2), 89-114. <http://doi.org/10.3743/KOSIM.2018.35.2.089>
- 최희곤 (2003).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 LISA & ISA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61-79.
- 한국도서관협회 (2024).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홍현진, 노영희, 김동석 (2021).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현황조사 및 인식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5-36.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005>
- Abels, E. G., Howarth, L. C., & Smith, L. C. (2018). Transform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by Design. In Percell, J., Sarin, L. C., Jaeger, P. T., & Bertot, J. C. (eds). *Re-Envisioning the MLS: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 44A. Leeds: Emerald Publishing Limited, 71-89. <https://doi.org/10.1108/S0065-28302018000044A009>
- Chang, Y. W., Huang, M. H., & Lin, C. W. (2015). Evolution of research subjects in library

- and information science based on keyword, bibliographical coupling, and co-citation analyses. *Scientometrics*, 105(3), 2071-2087. <https://doi.org/10.1007/s11192-015-1762-8>
- Chrastka, J. (2018). On Teaching Political Literacy. In Percell, J., Sarin, L. C., Jaeger, P. T., & Bertot, J. C. eds. *Re-Envisioning the MLS: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 44A. Leeds: Emerald Publishing Limited, 109-118. <https://doi.org/10.1108/S0065-28302018000044A011>
- Dali, K. (2018). Integrating Social Work Perspectives into LIS Education: Blended Professionals as Change Agents. In Percell, J., Sarin, L. C., Jaeger, P. T., & Bertot, J. C. eds. *Re-Envisioning the MLS: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 44B. Leeds: Emerald Publishing Limited, 83-121. <https://doi.org/10.1108/S0065-28302018000044B007>
- Jamali, H. R. & Nabavi, M. (2021).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evolution of research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62(3), 287-302. <https://doi.org/10.3138/jelis.2020-0025>
- Lofca, I. (2024). Diversity, equity, inclusion, and access coverage in technology-focused courses.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nnual Conference, 2024*. <https://doi.org/10.21900/jalise.2024.1765>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Ahn, In-Ja, Choi, Sang-Ki, Noh, Young-Hee, & Kim, Ju-Sup (2012). A study of the curriculum cours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career path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373-402. <https://doi.org/10.16981/kliss.43.4.201212.373>
- Cha, Mi-Kyeong, Lee, Yeon-Ok, Yang, Soo-Youn, & Jeong, Hye-Mi (2007). A survey of children's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for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8(1), 95-115. <https://doi.org/10.14699/kbiblia.2007.18.1.095>
- Chan, Hye-Rhan, Hong, Hyun-Jin, Noh, Young-Hee, & Oh, Eui-Kyung (2008). A study on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continuing education for academic librarian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3), 133-168. <https://doi.org/10.4275/KSLIS.2008.42.3.133>
- Chang, Yun-Keum & Jeong, Haeng-Soon (2008).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and status of

- continuing education for children's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481-501.
<https://doi.org/10.4275/KSLIS.2008.42.4.481>
- Chang, Yun-Keum (2011). Comparative study of the changes in LIS education in Korea, U.S.A. and Australi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4), 317-34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4.317>
- Cho, Chan-Sik (1999). A study on research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3), 45-61.
- Choi, Hee-Kon (2003). A study on the research patterns of domestic library & information researchers through LISA & IS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1), 61-79.
- Choi, Hyung-Wook, Choi, Ye-Jin, & Nam, So-Yeon (2018). Time series analysis of intellectual structure and research trend change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03 to 2017.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2), 89-114.
<http://doi.org/10.3743/KOSIM.2018.35.2.089>
- Chung, Jin-Sik (2001).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96-200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3), 55-78.
- Hong, Hyun-Jin, Noh, Young-Hee, & Kim, Dong-Seok (2021). A study on status and necessity of the curriculum for the depart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5-36.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005>
- Jang, Durk-Hyun, Ku, Bon-Jin, & Yoon, Hee-Yoon (2015). A research on the continuing education for librarians: current situations and suggestio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2), 181-202. <https://doi.org/10.16981/kliss.46.201506.181>
- Jeong, Dong-Youl (1993). Theory buld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ased on research method analysi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0(2), 23-41.
- Jeong, Him-Chan & Kim, Soo-Jung (2018). A study on the transfer effect of continuing education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for records manag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3), 71-95.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3.071>
- Jeong, Hye-Mi & Cha, Mi-Kyeong (2007). A study on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develop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children's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3), 39-64.

<https://doi.org/10.14699/kbiblia.2007.18.2.161>

- Jeong, Suk-Young & Kim, Soon-Hee (2021). Improvement methods for archival continuing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English/American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for archiv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1(1), 231-247.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1.231>
- Kim, You-Seung, Park, Zi-Young, Park, Tae-Yeon, Son, Seung-Hee, Youn, Eun-Ha, Lee, Min-Young, Jun, Bo-Bae, & Hyun, Moon-Soo (2021). A study on alternative strategies for archival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1(1), 19-40. <http://doi.org/10.14404/JKSARM.2021.21.1.019>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24). *Korea Library Yearbook*.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wack, Dong-Chul (2011). A study on the essence and direction of th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69-83.
<https://doi.org/10.16981/kliss.42.2.201106.69>
- Lee, Chi-Ju (2002).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patter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96-2000.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9(3), 145-160.
- Lee, Eun-Ju & Rho, Jee-Hyun (2020). Research outcomes and limitations of records and archives organiz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4), 129-146.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4.129>
- Lee, Jae-Yun (2006a). A study on the network generation methods for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knowledge domai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2), 333-355. <https://doi.org/10.4275/kslis.2006.40.2.333>
- Lee, Jae-Yun (2006b). A novel clustering method for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a scholarly field.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4), 215-231. <https://doi.org/10.3743/KOSIM.2006.23.4.215>
- Lee, Jae-Yun (2006c). Centrality measures for bibliometric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3), 191-214.
<https://doi.org/10.4275/kslis.2006.40.3.191>
- Lee, Jae-Yun (2013). A comparison study on the weighted network centrality measures of tnet and WNET.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241-264.
<http://doi.org/10.3743/KOSIM.2013.30.4.241>
- Lee, Jae-Yun, Kim, Pan-Jun, Kang, Dae-Shin, Kim, Hee-Jung, Yu, So-Young, & Lee, Woo-Hyoung (2011). A bibliometric analysis on LED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2(3), 1-26.

- Lee, Jae-Yun. COOC. (Version 0.4) [Computer Software].
- Lee, Jae-Yun. WNET (Version 0.4.1) [Computer Software].
- Lee, Ji-Won (2019). A study o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nd intellectual structure of cataloging field.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4), 279-300.
<https://doi.org/10.3743/kosim.2019.36.4.279>
- Lee, Myeong-Hee (2002). Recent trends in research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3), 287-310.
- Lee, Yun-Jung & Chung, Yeon-Kyoung (2021).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iculum of graduate schools of archival sciences in Korea and the foreign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567-591.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567>
- Moon, Kyoung-Min (1993). An Analysis of the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Nam, Young-Joon & Heo, Oun-Soon (2005). A study on the curriculum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subject specialis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3), 39-64.
- Noh, Dong-Jo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curriculum for educ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4), 317-340. <http://doi.org/10.4275/KSLIS.2009.43.4.451>
- Noh, Young-Hee (201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changing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79-107. <https://doi.org/10.16981/kliss.46.201512.79>
- Oh, Eui-Kyung (2023). A study on measuring the effects of continuing education of librarian teachers using kirkpatrick educ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2), 295-311. <https://doi.org/10.14699/KBIBLIA.2023.34.2.295>
- Oh, Se-Hoon (200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nalyzing journal articles and the cited literatur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379-408. <https://doi.org/10.3743/kosim.2005.22.3.379>
- Park, Soo-Hee & Jeong, Dong-Youl (2012). A study on developing a model of a liaison training program for academic librarian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4), 311-339. <http://doi.org/10.4275/KSLIS.2012.46.4.311>
- Sohn, Jung-Pyo (2003a).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 science in Korea: 1957~2002.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3), 9-32.
- Sohn, Jung-Pyo (2003b).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the master's & doctor's dissertations in the field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59~2002.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4), 21-42.
- Song, Jung-Sook (2010).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focused on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from 2001 to 2010.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333-353.
<https://doi.org/10.16981/kliss.41.4.201012.333>
- Yoo, Yeong-Jun & Lee, Jae-Yun (2019). A bibliometric study on foreign reformed theological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3), 149-170. <http://doi.org/10.14699/kbiblia.2019.30.3.149>
- Yoo, Yeong-Jun (2003).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